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발의 사회적 인식 제고의 기회 마련

인천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국민의힘·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산업경제

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마쳤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보육 및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 근거를 마련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더 넓은 사회적 인정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안의 통과는 인천 지역 내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삼 기자



의회 단신



평택시의회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안건 23건 심사 앞뒀

평택시의회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0일 조례안 등 23개 안건을 심사하고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다음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승겸 의원이 화장을 증가에 따른 평택시 화장시설 건립을 촉구하면서 후보지 결정 등 설치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준비와 해법으로 △중립적인 갈등관리기구 구성 △공공화 과정을 통한 인식 개선 △주민편익시설과의 결합 등을 제시했다.

신동훈 기자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 협력체계 구축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 남양주시 공무원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민주당, 남양주2)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의 김동진 기반조성 1팀장 등 공공의료원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해 의회 안팎에서 적극 노력해 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에 공공의료원을 건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균형 있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남양주시 또한 올해부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뛰어 들었다.



김미리 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지난 24일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의 김동진 1팀장 등 공공의료원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고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우선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로 ‘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의 기반조성조직으로 논의하고 백봉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남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발주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의료원 유치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정 모두가 협력해 한 목소리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창 기자

광주시의회 올해 첫 회기

제306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최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정업무보고를 듣고 2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구학호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표준안 마련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 관리 표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 근태관리, 지도·감독 및 업무 지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맞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갈등 유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총 2149명(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유치원 237명, 초등학교 886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266명 및 특수학교 197명 등이며 교육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주 복무 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학습지원,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으로 이의 일상업무 및 긴급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TF’ 팀이 구성됐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된 후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 등에 배포가 완료됐다.

김민창 기자

구민 복리증진·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다수 제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천 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안전 등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다수 제출됐다.

먼저 원태근 부의장이 발의한 ‘인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 경우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종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 동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최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는데 최 의원은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오수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

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지난 23일과 29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일간경기
www.1gan.co.kr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스체크

일간경기 모바일앱

진짜
간편하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창에 일간경기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